

치 사

생명의 기운이 산천 곳곳에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봄기운이 가득하기에, 오늘 민심과 문화가 생동하는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서로의 반가운 웃음으로 봄소식을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온 세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어느덧 다섯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시간만의 경과가 아니라 전통문화를 현시대에 맞게 계승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원력이 점차 결실을 맺어, 온정이 필요한 많은 이웃을 자비의 손길로 따뜻하게 보듬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회와 이웃에게 또 한걸음 다가가는 행복한 순간이라고 불자의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일상생활에 융화하여 행복바라미의 참뜻을 실천하시는 포교사와 불자 여러분께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부대중의 솔선수범에 지혜로움을 더하여, 최근 국가와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불안과 걱정을 떨어내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운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층 정진하는 마음으로 저마다의 삶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상징하는 뜻 깊은 현장에서, ‘금강경 독송 정진’을 통해 나라의 안녕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모범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의 길을 열어가는 매우 의미있는 실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효스님의 ‘화쟁’의 가르침이 현시대에 더욱 마음속으로 들어서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분열과 반목이 만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해와 화합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야 이루어 질 것이며,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근원으로서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곁에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의 깊은 울림처럼 한 곳에 집착하여 마음이 이끌리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옳음과 또 다른 옳음이 공존할 수 있는 청명한 사회로 함께 정진해 나아갑시다.

‘행복바라미’라는 소중한 공덕을 쌓아가는 중앙신도회와 함께하신 불자 여러분께 거듭 치하와 격려의 마음을 드립니다. 불자의 당당함으로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고, 정진의 인연으로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환하게 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2017)년 4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